

조계종화쟁위원회 · 불교신문 공동기획 **김선우 연재소설 / 세 개의 달** <1>

## 지금 이 거리에서 울고 웃는 나...원효의 마음



일러스트=클로이 violetto@naver.com

후일 한 선사는 붓대를 만나면 붓대를 죽이라 하였으나  
 오늘의 달빛은 달의 가장 밝은 데와 가장 어두운 데를 한 길로 건너가고.  
 권위의 허물을 맹목하지 말라, 사무치는 열의를 모르는 바 아니나  
 깨치려는 자여, 시대를 알아내고 길을 찾으라.  
 세 개의 달을 한 길로 벗어날 때, 그때는 죽임과 피의 면장을 버리소서.  
 죽은 어머니를 만나면 죽은 그이를 살리고  
 죽은 어머니를 만나면 죽은 어머니를 살리고  
 죽어가는 백성을 만나면 내가 죽으리라.  
 그것이 천사백년전의 마음이고 천 년 전의 마음이고 오백년 전의 마음이고  
 지금 이 거리에서 울고 웃는 나 원효의 마음이라네.  
 여가는 자기이고 저기는 자기이니,  
 오시오, 세 개의 달 속에서 연화장 꽃잎이 어떻게 부처를 키우는지  
 보고 기어코고 건너고, 깨어난 자 걷는 자 벗어난 자여.

북원을 건너서 젖은 바짓가랑이에 먼지가  
 휘감겼다. 앞코가 해진 갓신 두덤으로 누런 흙  
 먼지가 들리붙는 것을 내려다보며 청년은 묵  
 묵히 걸음을 때어갔다. 두 달간 배가 내리지 않  
 은 바삭 매마른 뜨거운 대기 속에서 서라벌의  
 유희는 벌써 뜨거웠다. 동산처럼 거대한 무덤  
 들이 무리지어 늘어선 특지대에 들어서자 혼

백들이 빠져나오듯 아지랑이가 아물거렸다.  
 황룡사 9층 목탑 맨 위층에서 서라벌을 내려  
 다보던 그날이 떠올랐다. 우마차가 다니는 탄  
 탄하게 다져진 대로와 촘촘히 뻗은 소로들 사  
 이에 거대한 무덤들이 무리지어 솟고 주위에  
 주땀, 사찰, 왕궁들이 어울려 펼쳐진 서라벌의  
 첫인상은 경이로웠다. 생사의 일이 이렇듯 한

바탕에서 출현한다는 듯 무덤과 민가가 뒤섞  
 여 생생한 활기를 내뿜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도시, 서라벌이구나.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뿜  
 던 그날로부터 꼬박 삼년이 지난 것인가.  
 잠시 고개를 든 청년이 부신 듯 눈을 찡그  
 리다 다시 발발을 내려다보며 곁었다. 아일이  
 거대한 화폭을 끌어놓은 화원은 누구일까. 잠  
 시 짧은 생각이 떠올랐으나 생각은 곧 흩어졌  
 다. 청년이 한 발을 뒤로 돌려 등에 짊어진 거  
 적자루에 손을 댔다. 자루가 조금 미들하는 듯  
 도 하였다. 조금만 더 견뎌도. 청년이 바짝  
 마른 입술을 열어 중얼거렸으나, 중얼거림은  
 말이 되어 나오지 못했다. 청년의 매마른 입술  
 사이 자줏빛 피막자들이 엉겨붙어있었다. 한 사  
 람을 등에 업고 나를 낚았을 줄곧 곁어온 셈  
 이었다.  
 동시(東市)가 가까워지자 행인이 많아졌다.  
 그제야 청년은 행인들이 자신을 힐끗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지난 며칠간이 끝  
 속처럼 풍물했지만, 웅성거리는 시장 사람들 사  
 이에 들어오자 파퓰 정신이 들었다. 병졸이나

시전 관리를 눈을 피해야 한다. 나는 지금 탈영  
 병이다. 당당한 품새라야 의심을 덜 받는  
 다…… 본능적인 계산들이 머릿속을 지나갔다.  
 거적자루를 짊어진 등을 가능한 반듯하게 펴  
 보았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번 쓰윽 문지르  
 는 청년의 눈빛은 이마를 감은 자못똥똥 피  
 뚝으로 흘러나온 검은 머리카락 사이에서 길게 반  
 쩌었다.  
 ‘천상천하유아독존의 아름다움을 지나야 하  
 는구나. 아름다움 중 제일인 당당한 아름다움  
 이다.’ 오래전 숙부의 목소리가 살처럼 지나  
 갔다. 천상천하유아독존! 그 말슴을 청년은 사랑  
 하였다. 청년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복잡한 표  
 정이 서렸으나 유난히 하얀 반비를 입고 머리  
 에 발발을 쓴 채 지나가던 한 사내가 뻔히 쳐다  
 보자 이내 일 표리를 위로 끌어당기며 씩 웃어  
 보았다.  
 운명이라면 부딪쳐야 하리라. 청년은 생각했  
 다. 정면으로 가겠다. 청년은 또 생각했다.  
 일단은 서둘러 그곳을 찾아야 한다.

▶15면에 계속

### 조계종지도자연수

## 국민 행복-평화 위해 마음 열다

종단의 지도부 스님들이 연수를  
 통해 진각종 천태종 원불교 등 신종  
 종단의 성장동력을 살펴보고 종단  
 의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조계  
 종 지도자 연수가 총무원장 지승스  
 님을 비롯한 주요 소인사 스님 140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1박2일간 개최됐다.  
 연수에 참여한 스님들은 15일 진  
 각종 총인원, 천태종 구인사를 둘러  
 보고 진각종 총무원장 혜정장사, 천  
 태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무원스님  
 의 영접을 받으며 각 종단의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이튿날 대화  
 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는 원불교  
 교정원 기획실장 배현승 교무의 프  
 레젠테이션이 진행됐으며, 스님들  
 은 대중공사를 통해 한국불교 대표  
 종단인 조계종의 나아갈 길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연수에는 총무원장 지승스  
 님,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로계원  
 장 범두스님, 교육원장 현승스님, 포  
 교원장 지일스님과 함께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중앙총무기

- 천태·진각종·원불교  
 신종종단 성장 동력  
 중앙 집중시스템 공부
- 주요사찰 주지 참칭  
 미래 위한 대중공사
- 총선-대선 선거정국  
 리더 자세-역할 공유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재단에서 열린 조계종지도자연수 일제사.

부실장 및 산하 교역직 기관장, 직  
 영사찰과 주요사찰 주지 스님들이  
 대거 참석했다.  
 연수에서 드러난 신종종단들의  
 교세 확장 원동력은 재정의 중앙집  
 중 시스템으로 분석된다. 단위사찰  
 의 수익은 거의 전액이 중앙에 납부  
 되고, 이를 집행부가 철저한 기획과  
 관리하에 집행하며 각종 포교사업  
 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원불교의 경

우 재정 확충을 위해 후원장이란 지  
 주회사를 세워 제약 인쇄 의료기  
 업을 포함한 금융과 용역까지 다채  
 로운 사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  
 었다. 물론 조계종에 비해 스님과  
 사찰의 숫자 등 규모 면에서 아직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출가자 감소와 신도의 노령화  
 추세 역시 공통으로 갖고 있는 고  
 민거리였다. 대중공사에서는 대표

종으로서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고  
 려하되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대안  
 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  
 됐다. 한편 불교사회연구소장 범안  
 스님은 “총선과 대선에서 사회 및  
 지역리더로서의 불교와 불교 지도  
 자의 자세와 역할”을 주제로 발표  
 하며 선거정국에 대한 스님들의 바  
 른 이해와 계도를 주문했다.  
 무엇보다 이종종단의 사례를 타

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불교중  
 흥의 방법론 정립을 돕는 일한 시간  
 이었다는 게 연수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였다.  
 총무원장 지승스님은 입재식 인  
 사를 통해 지도자 연수의 의미를  
 분명히 전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들의 성장에 담겨있는 내면의  
 원동력을 이해하면서, 우리 종단이  
 참고할 부분은 눈여겨보고, 이웃 종  
 단과의 상호 협조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있  
 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스님은 아울러 “이웃종  
 교의 이해와 배움을 통한 소통을 기  
 초로 사회와의 소통과 상생도 중요  
 하는 자리”라며 “종단간 그리고 종  
 교간 이해와 협력은 모든 종교인들  
 의 행복과 평화로 연결될 것이며,  
 이것이 사회로 확대되어 국민의 평  
 화와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도자 연수의 모  
 토는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이  
 었다.

###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포럼 ‘한국 근대불교 100년과 퇴용성철’

불교신문은 (재)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과 2012년 ‘우리 시대의 부  
 처’ 성철스님(1912-1993)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한국 퇴용성철의 100년과 한  
 국불교의 100년’이라는 주제로 2011년부터 학술포럼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 ‘퇴용성철과 현대한국불교’라는 주제로 4회의 포럼을 통해 성철스님의 삶  
 과 사상의 역사적 맥락을 모색한 데 이어, 2012년은 ‘퇴용성철과 한국불교의 수  
 행’이라는 주제로 성철스님 사상의 본질인 돈오돈수와 한국불교의 수행법을 조명  
 하고자 합니다. 올해 첫 번째인 이번 포럼은 ‘문점사상의 역사와 의미’를 주제로  
 동국대 불교학술원 총학연구소 손재학술포럼을 겸하여 진행합니다.

2012년 주제 ‘퇴용성철과 한국불교의 수행’  
 [제5차 포럼 ‘문점사상의 역사와 의미’]

- 일시: 불기 2556(2012)년 3월 29일(목) 오후 2시-6시
-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용연강(조계사 강대)
- 주최: 성철스님문화재단,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신문사
- 주관: (재) 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성철선사상연구소, 동국대 불교학술원 총학연구소
- 진행: 개회사: 원벽스님(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환영사: 홍호스님(동국대 총학연구소 소장)
- 사회: 윤원철(서울대 교수)

---

주제 1. 초기불교 경전에 나타난 단(斷)과 접(接)  
 발표: 임승택(경희대 교수)  
 논평: 김재성(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

주제 2. 중국 선사들의 문점론과 그 이해  
 발표: 홍호스님(동국대 교수)  
 논평: 김대부(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주제 3. 돈오돈수와 조사선: 한국 선의 특징  
 발표: 정영성(동국대 HK연구포럼 교수)  
 논평: 변희욱(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연구원)

주제 4. 돈오돈수 경 새로운 읽기  
 발표: 박재철(원광대 교수)  
 논평: 사명현(서경대 교수)

불교신문사

## 고불총림 방장 수산당 지종대중사 원로회의장 봉행에 대한 감사의 인사

고불총림 방장 수산당 지종대중사 원로회의장을 봉행하여 주신 정의위원장  
 종산근스님과 총무원장 지승근스님 및 정의위원스님, 그리고 원근을 불문  
 하고 조문하여 주신 원로대덕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찾아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먼저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해방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도들은 스님의 반신반부 수행가풍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행과 포교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불기2556(2012)년 3월 12일

고불총림 방장 수산당 지종대중사 문도일동 합창

### 수산당 지종대중사 추모제 안내

초제 3월13일(음 2.21)	화요일 오전10시 정성 백양사	061-392-7502
2제 3월20일(음 2.28)	화요일 오전10시 영명 불갑사	061-352-8097
3제 3월27일(음 3. 6)	화요일 오전10시 해남 미황사	061-533-3521
4제 4월 3일(음 3.13)	화요일 오전10시 영명 불갑사	061-352-8097
5제 4월10일(음 3.20)	화요일 오전10시 서울 백담암 성도선사	02-815-3391
6제 4월17일(음 3.27)	화요일 오전10시 영명 불갑사	061-352-8097
7제 4월24일(음 3.4)	화요일 오전10시 정성 백양사	061-392-7502

\*추모보시금은 개별적으로 거머버리는 대신 대한불교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의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기탁하였습니다.